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1.15(금) ~ 2024.11.21(목)

제공일시 2024 11 29 Fri
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
문 의 02 398 7675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1.15(금) ~ 2024.11.21(목)

제공일시 2024 11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글로벌 정책

1. EU산림벌채규정 1년 연기안, 유럽의회서 통과

- EU 산림벌채규정(EUDR)이 예정보다 1년 늦춰짐

- 유럽의회는 14일(현지시각) 본회의에서 EUDR 개정안을 찬성 371표, 반대 240표, 기권 30표로 통과시킴. 시행 시기는 2024년 12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0일로 연기됨

-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제 유럽집행위원회, 이사회, 의회 간 3자 협상에 들어감. 최종 법제화를 위해서는 EU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EU 공식 저널에 게재돼야 함

- 환경단체들은 투표로 통과된 개정안이 EUDR을 약화시켜 주요 환경 법률을 훼손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함

(임팩트온 2024.11.18)

2. 낙농 강국 덴마크, 2030년부터 세계 첫 '가축 탄소세' 부과

- 세계적인 낙농국가인 덴마크가 소를 비롯한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'가축 탄소세'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함

- 19일(현지시각) 남아프리카공화국 온라인 매체 프라이미디어 플러스에 따르면, 덴마크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가축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축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이날 발표함

- 이에 따라 덴마크 축산 농가에서는 메탄가스 톤당 최대 300크로네(약 5만원)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함

- 덴마크 정부는 가축 탄소세를 점차적으로 올려 오는 2035년까지 톤당 750크로네(약 14만원)를 부과한다는 계획임

(글로벌이코노믹 2024.11.20)

3. 일본, 2040년 원전 비율 20%로 유지 방침… 가동원전 2배 늘려야 가능

- 일본 정부가 2040년도 전력 공급 중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%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(닛케이)이 19일 보도함. 이는 재가동 원전을 현재 기준 2배 이상 늘려야 도달 가능한 수치임

- 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에 정리할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목표에서 원전 비율을 이같이 결정할 방침임. 2030년 원전 비율 목표인 20~22%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

- 요미우리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열발전 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함

(경향신문 2024.11.19)

국내 정책

1. 환경부, 실리콘밸리서 '한국형 녹색기술' 투자 유치 추진

- 정부가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함

- 환경부는 오는 18~24일 미국 실리콘밸리로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힘

-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국내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IR 피칭데이(K-Green Day) 개최, 현지 투자유치, 파트너사 발굴 지원 등을 목표로 추진됨

-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△디젤매연저감장치(DPF) 방식 공기정화시스템 △그린수소 발생장치 △나노구조 유수분리막(멤브레인) △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등 10개 기술임

(메트로신문 2024.11.19)

2. 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논의… 전력망법도 속도

- 반도체 특별법, 전력망 확충법 등 굵직한 산업·에너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함

- 산자위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법안 심사에 집중할 방침임

- 여야가 '반도체 업계 주52시간 적용 예외', '전력망 수립 시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우선 고려' 등 주요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됨

- 반도체 특별법, 전력망 확충법,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은 여야가 처리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주요 산업·에너지 법안으로 꼽힘

- 22대 국회 개원 후 산자위가 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임

(이투데이 2024.11.19)

3. 범부처 차원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'기후위기대응단' 신설

- 환경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'기후위기대응단'을 신설함

- 14일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'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'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힘

- 기후위기대응단은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며,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이 단장을 맡게 될 예정임

- 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재난, 농·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섬

(파이낸셜뉴스 2024.11.14)

글로벌 기업

1. 블랙록 등, SAF 인증서 구매… 지속가능 항공 구매자 연합(SABA) 참여

- 블랙록(BlackRock), 블록(Block), 삼사라(Samsara), 리플(Ripple)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 항공연료(Sustainable Aviation Fuel, SAF) 인증서를 구매하며 SAF 업계에 자금을 제공함

- 18일(현지시각)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, 이들 기업은 '지속가능 항공 구매자 연합(Sustainable Aviation Buyers Alliance, SABA)'에 참여해 총 2억달러(약 2800억원) 규모의 SAF 인증서를 구매함

- 해당 SAF는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에 사용될 예정이며, 인증서를 통해 기업들은 출장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계획임

(임팩트온 2024.11.19)

2. CATL, 영하 40도 견디는 나트륨 배터리 내놓는다

- 중국 CATL이 영하 40도에서도 상온처럼 방전되는 전기차용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내년 내놓음

- 18일 중국 언론 차이롄서에 따르면, 전일 열린 세계청년과학자서빗에서 CATL의 우카이 수석과학자는 "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내년 출시될 것"이라고 밝힘

- 이날 우 수석과학자는 "CATL의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개발됐다"며 "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방전되며 극한 지역에서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다"고 설명함

(지디넷코리아 2024.11.19)

3. 美 법무부, 구글에 크롬 매각 명령 추진… 반독점 규제 강화

- 미국 법무부(DOJ)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(Chrome) 매각을 강제하도록 판사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(현지시각) 보도함

- 보도에 따르면, DOJ는 올해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판사에게 인공지능(AI) 기술과 안드로이드(Android) 스마트폰 운영체제(OS)와 관련된 이 같은 조치를 요청할 예정임

(IT조선 2024.11.19)

4. 카본프리,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광물 '엔듀로칼' 출시

-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본사를 둔 카본프리(CarbonFree)가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(CO_2)를 활용해 제조한 친환경 광물 제품 '엔듀로칼(endurocal™)'을 출시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재료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함

- 이 제품은 기존의 탄산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으로 페인트, 플라스틱, 종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지님

- 카본프리의 대표적인 기술에는 스카이사이클(SkyCycle™)과 스카이마인(SkyMine®)이 있음

(임팩트온 2024.11.20)

국내 기업

1. 삼성물산, 수자원공사와 호주-남태평양 도서국 사업 협력 논의

-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와 호주-남태평양 도서국 사업 협력 물꼬를 틈. 양사는 향후 신사업 발굴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전망임

-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(ALIO)에 따르면,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지난 2일(현지시간)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삼성물산 호주 지점을 방문함

- 수자원공사는 삼성물산의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호주-남태평양 도서국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

(더구루 2024.11.19)

2. 한화솔루션 큐에너지, 프랑스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1차 관문 통과

- 한화솔루션이 프랑스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출사표를 던짐

- 프랑스 정부는 18일(현지시간) 브르타뉴 남부 지역과 지중해, 남대서양 지역에 총 4개의 신규 해상 풍력 개발 부지를 제공하는 AO9 입찰에서 12개의 후보 기업에 사전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힘

- 12개의 후보 기업 중에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(한화큐셀)의 유럽 에너지 사업 자회사인 '큐에너지(Q.Energy)'도 포함됨. 큐에너지는 일본 간사이전력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함

(더구루 2024.11.19)

3.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, 대규모 ESS 공급 계약 체결

-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(ESS) 공급 계약을 체결함.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기가와트(GWh)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힘

- 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출범한 이후 거둔 최대 규모의 성과로 이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됨

- 이번 계약 물량의 공급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임. 공급되는 제품은 전량 북미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임

(뉴스저널리즘 2024.11.14)

4. 가온전선, LSCUS 지분 전량 인수 북미 인프라시장 공략 확대

- 가온전선은 북미 인프라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타보로시 소재 배전케이블 생산법인인 LSCUS의 지분 82%를 인수한다고 19일 밝힘. 이날 가온전선이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LSCUS 주식양수안을 승인함에 따라 100% 자회사가 됨

- 내년에는 북미 시장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임

(이투뉴스 2024.11.19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1.15(금) ~ 2024.11.21(목)

제공일시 2024 11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인도, 미국 청정에너지 목표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

-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자문회사 밸류퀘스트(ValueQuest Investment)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, 인도는 제조업에서의 강점과 비용 경쟁력, 숙련된 노동력을 기반으로 미국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잡을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
- 보고서는 인도의 강점으로 △대규모 제조 기반 △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 △풍부한 인재 풀(pool)을 꼽았음. 이 같은 요소들이 결합돼 인도를 미국에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음

- 특히, 미국이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적 변화가 인도의 이점을 더욱 강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음

- 보고서는 "인도의 규모와 인재, 비용 효율성은 미국이 선호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"고 강조했음. 특히, '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'을 통해 미국 내 재생에너지 급성장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, 인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

- 2023년 미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13년 15GW에서 178GW로 급증했음. 보고서는 IRA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, 이 법을 크게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음

- 보고서에 따르면, 인도와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제약산업을 비롯한 기존 무역관계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원활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. 특히, 최근의 반중(反中) 정서가 인도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더욱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음. 인도는 이미 여러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 시설에 투자하며 세액 공제를 활용,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

- 인도는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에너지 도입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음. 2024년 10월 현재 인도의 설치된 태양광 PV(광발전) 용량은 9만2119MW에 이르며, 이는 대규모 수력을 제외한 총 재생에너지 용량의 58.96%를 차지함

- 특히, 2024년 10월 한 달간 인도는 1.357GW의 태양광 PV 용량을 추가했음. 이를 통해 대규모 수력을 제외한 인도의 총 재생에너지 용량은 156.247GW를 돌파했으며, 이 중 태양광과 풍력이 89.5%를 차지했음.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태양광 설비는 27.91% 증가했으며, 2023년 10월의 72GW와 비교해 단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음

- 이 같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배경에는 2024년 4월 1일 발효된 신재생에너지부(MNRE)의 태양광 모듈 승인 모델 및 제조업체(ALMM) 행정명령이 있음. 이 행정명령은 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고품질의 태양광 모듈 사용을 보장하며, 태양광 설비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

- 현재 태양광과 풍력은 대규모 수력을 제외한 인도의 총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에서 약 139.835GW를 차지함. 특히, 태양광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탄소 발자국을 대폭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

- 지상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71.05GW로 태양광 발전의 주력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, 하이브리드 태양광 구성 요소는 2.63GW를 기여하고 있음. 옥상 태양광을 활용한 분산형 발전은 총 14.45GW에 달하며, 이는 주거, 상업, 산업

건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화 된 청정 에너지 생산을 지원함

- 또한 태양광 에너지는 전통적으로 전력 접근성이 제한됐던 농촌 지역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음. 태양광 랜턴과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오프그리드 태양광 솔루션은 3.99GW를 차지하며, 원격 지역 사회에 전력을 공급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음

- 인도의 태양광 발전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, 기술 혁신,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임. 태양광 발전은 현재 인도의 재생에너지 용량의 58.96% 이상을 차지하며,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

(임팩트온 2024.11.20)